

광주 대표기업-사회적기업 ‘상생 발전’ 맞손

‘1사1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십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용섭 시장 “광주경제공동체 지속성장 가능 지원”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1사1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대표기업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1사(社) 1사회적경제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기업 15곳, 사회적경제기업 협의회 4곳,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2곳이 지속가능경영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서로 매칭해 상생발전 프로그램 개발·참여에 협력하고, 기업 경영 노하우·인적자원 등을 사회적기업과 공유하며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

다.

시는 10월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기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간 매칭 및 사업 협력 컨설팅 진행, 상생발전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협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초대 부위원장 시절 완성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며 “양극화 해소와 공익을 증시하는 착한경제·정의로운 경제인 사회적경제 선도모델을 광주에서도 실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오늘 및접은 손으로 광주 경제공동체가 지속성장 가능한 힘을 얻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시장과 정영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김현철 금호고속㈜ 사장, 박재홍 영무건설 회장, 류광수 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장, 장미라 광주마을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광주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문예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음악회’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문예회관 및 외부의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하는 자율기획 공연프로그램과 지역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에서는 동구가 유일하다.

동구는 국악, 교향악, 어린이뮤지컬 공연 개최 등을 내용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최종 6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국비 1천7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구, 한가위 직거래 장터 운영

광주 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서구 청사 광장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의사업을 펼치고 있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의 홍보와 직거래를 통한 매출 활성화를 돋울 위에서 마련된 것.

매월 및 수시로 운영해 오고 있는 직거래 장터는 금번 추석 명절을 맞아 통합 운영 형식을 통해 우수 상품을 한 자리에서 홍보한다.

남구 방림1동 행복문화센터 새로 태어난다

광주 남구는 건물 노후화로 주민 사랑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방림1동 행복문화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5일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방림1동 행복문화센터에 대한 장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림1동행복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행복문화센터는 그동안 오카리나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안전상 문제가 발생돼 지난 2017년 9월 이후로 센터 사용이 중지됐다.

남구는 행복문화센터를 재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건의됨에 따라 사업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게 됐다.

북구,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특별점검

광주 북구는 “오는 20일까지를 ‘환경오염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지도·점검 및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사업장의 장기 휴무에 따른 기계고장 등에 따른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9개소에 대해 미신고 시설장비 설치·운영, 폐수 무단방류, 환경오염 방지장비 비정상 가동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추석 전, 추석연휴, 추석 후 까지 단계별로 나눠 실시되며 추석 전에는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 및 폐수배출사업장 사전 점검 실시하고 추석연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의 순찰을 강화한다.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 침사람 숲 마을총회

4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민자치회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사람 숲, 우산동 마을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마을총회는 마을의제들을 주민이 제안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공론의 장.

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의제 설정을 위해 7~8월 5차례 마을학교를 운영했다. 나아가 마을디자이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5가지 의제를 선별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들은 이 의제들을 공유하고, 투표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돌입…市 교통대책 추진

2호선 1단계 구간, 2023년 완공 목표로 5일 기공식

특별대책단 중심 공구별·단계별 교통처리 대책 마련



광주시는 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가는 광주 도시철

도 2호선 공사 중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처리대

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착공에 대비해 지난 3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 교통처리특별대책단(단장 행정부시장)’을 구성하고 2호선 전 구간이 완공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은 △공사중 교통혼잡 완화, 안전사고 예방 △주요 교통혼잡구간 관리 △백운광장 주변의 2호선 건설과 백운고가 철거, 지하차도 건설 등 각종 공사의 사업 시기 조정 △공사 기간 교통통제, 부제 시행 검토,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 시 차원의 종합교통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단은 공구별 차로 점유와 복공관 설치계획, 백운광장 등 난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논의했고 시공사와 함께 단계별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책단은 굽착 후 복공관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단위공사장 길이를 30m 이내로 하고, 작업구가 설치되는 공간은 20m 이내로 축소해 도로 점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사구간의 점유차로도 2~3차로를 넘지 않도록 계획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통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한속도는 현재보다 20km/h 이상 낮춰 도로 이용자와 공사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제한속도 준수를 위해 단속카메라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보행 동선이 변경되는 경우 차량 통행과 최대한 분리하고 비산먼지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가림막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시공사 등과 함께 도로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통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와 이면도로 확보, 도로점용에 따른 차로 축소 및 신호체계 변경, 버스전용차로 임시 폐지 등 단계적으로 교통처리대책을 구체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